



사가있는 풍경

## 어떤 하루

천양희

건설중인 빌딩 꼭대기에  
둥지를 튼 송골매 두 마리가 새끼를 낳아  
다른 곳으로 날아갈 때까지  
공사를 중단했다는 이야기가 몇 년 전  
오스트리아 멜브른에서 들려와  
나를 감동시키더니  
우리는 언제 저렇게 아름답게  
살 수 있을까 궁금해지더니  
며칠 전 신문을 보고  
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 
놀랐느니  
아파트 공사장에  
까치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아  
다른 곳으로 날아갈 때까지  
공사를 중단했다는 이야기가  
멜브른이 아닌 우리나라 서울에서 들려 와  
나를 감동시키느니  
이것이 사랑하며 얻는 길이거니  
득도의 길이 거니  
아름다움과 자비는 어디에서나 자랄 수 있는 것

